

광주 1분기 출생아수 감소 11.3%...전국 최고

1586명...합계출산율 0.74, 감소폭 세종시 다음 전국 2번째 높아 전남 출생아수 2087명, 전년 비 82명 줄어...혼인건수는 늘어

광주시의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고 혼인 건수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시 출생아 수는 1586명으로, 전년 동기(1788명) 대비 202명(11.3%)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일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광주시 출생아 수 감소율이 컸던 건 혼인 건수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 올 1분기 혼인 건수는 1444건으로 전년 동기(1526건)보다 5.4% 줄었다. 세종(-6.0%)과 제주(-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이다. 수도권인 인천(+13.3%) 뿐만 아니라, 전북(+7.8%), 경북(+4.3%)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는 또 인구 1000명 당 새로 혼인한 비율을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시 조혼인율은 지난 3월 기준 3.6으로, 부산(3.1), 경남(3.2), 전북(3.2)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반면 전남은 지난 1분기 혼인 1891건으로 전년 동기(1865건)보다 26건(1.4%) 늘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 반면 전남지역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1분기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1분기 기준 2087명으로 전년 동기(2169명)에 비해 82명(3.8%) 줄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었던 곳은 인천(-3.2%)과 충남(-3.2%)이었다. 한편, 올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197건(0.4%) 늘었다. 1분기 이혼은 1년 전보다 14건(0.1%) 늘어난 2만2744건이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내 찬밥' 기아 EV9, 해외 선전에 출시 1년만에 5만대 돌파 '눈앞'

4월까지 4만8291대 팔려

올해 미국 수출 비중 46% 달해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출시 1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만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EV9은 1억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으로 내수 판매는 다소 부진했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포 대형 전기 SUV로서의 입지를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29일 기아 IR에 따르면 EV9은 지난해 6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4월까지 국내외에서 총 4만8291대가 팔렸다. EV9이 올해 들어 한달 평균 2000~3000대가 팔릴 것을 고려하면 아직 판매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이번 달 누적 판매 5만대를 넘은 것이 유력시된다. 출시 후 1년만의 기록이다. 특히 EV9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판매에서 내수 판매와 수출은 각각 8982대(18.6%), 3만9309대(81.4%)로 집계됐다. 수출이 내수판매의 4.4배에 달한다. EV9의 수출이 내수를 압도하는 경향은 올해 들어 더 심화됐는데, 올해 1~4월 내수 판매와 수출은 각각 930대(7.1%), 1만2211대(92.9%)를 기록했다. 수출이 내수 판매보다 13배 많아진 것이다. 특히 EV9은 해외시장 중 미국에서 큰 호응을



뉴욕 국제 오토쇼 기아 전시관에 전시된 '2024 세계 올해의 차' EV9. <기아 제공>

받았다. 올해 1~4월 미국으로 수출된 EV9 대수는 5579대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7%나 됐다. EV9은 세련된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99.8 kWh(킬로와트시) 배터리 탑재에 따른 긴 주행거리(501km)로 출시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옵션 선택 시 1억원에 가까

운 가격으로 '고가 논란'이 일었고,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수요가 부진했다. 하지만 EV9은 대형 SUV가 선호되는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전환의 계기를 맞았고, 지난 3월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 (World Car of the Year-WCOTY)를 수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H, 광주 선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추가 모집

208세대 순번 추첨 동호 지정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는 광주 선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약은 부적격 대상자 미계약분 208세대를 대상으로 순번 추첨 동호 지정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선운2지구 A-1, A-3블록 공공분양주택은 광주전남 최초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형이다. 2022년 2월 모집공고 당시 A-1블록 평균 106%, A-3블록 평균 141%의 청약 접수율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모집공고를 띄우고, 6월3~4일 청약 접수, 5일 당첨자 발표와 10일 계약을 체결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 만19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청년세대 한세대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2억7100만~2억7800만원이며, 중도금 납부 없이 계약 시 분양가격의 10%만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입주 시(2025년 4월) 납부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이용시 연1.3% 고정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상의, 중소기업 FTA 활용 수출 지원사업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운영 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9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OK FTA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중점업종 설명회 ▲글로벌 수출지원 포럼 ▲FTA 수출입 동향 조사 ▲FTA 통·번역 서비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장개척용 홍보물 제작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광주상의는 FTA통상진흥센터 내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장 실무경험

이 풍부한 관세사 3명을 위촉해 수출 전문인력이 없는 수출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FTA센터는 올해 다양한 수출 기업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FTA센터는 계약서, 홍보물 등 각종 자료의 외국어 통·번역과 FTA 인증수출자 시장개척용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또 전국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관성 있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일반 원산지증명서 518건, FTA 원산지증명서 1,118건, 서명등록 및 일반 무역인 증 서류 251건을 발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모빌리티산업 육성' 업무협약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8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규제개선 등 발굴 및 제안 ▲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간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기반 마련 ▲광주·전남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모빌리티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 형성 및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모빌리티협회는 스마트 이모빌리티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지식보급, 국제교류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어 광주TF는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기업들의 미래모빌리티산업 지원에 대한 요구에 적극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며 "이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하여 지역기업들의 밸류체인 강화 및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한국거래소가 밝혔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지난 1994년 1월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 백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류한 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5.5% 증

가한 4107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0.6% 감소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7.30(-45.55)
↓ 코스닥	838.45(-12.56)
↑ 금리(국고채 3년)	3.425(+0.031)
↑ 환율(USD)	1365.00(+6.50)

은행 신용카드 연체 10년만에 최고

2월 3.4%... '벼랑 끝' 다중 채무자들, 소액 급전조차 못 갚아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져야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약

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대출을 최대한 담겨선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3% 후반대로 올라서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장애인 20명과 광주 남구서 치유농업 체험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8일 광주 남구 원산동의 체험농장 힐링가든후에서 장애인 20명과 '치유농업 체험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대촌농협(조합장 이환형)과 농가주부모임 광주자연연합회(회장 황금숙)이 도우미로 참여해 체험에 나선 장애인들이 원활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들은 원예식물 가꾸기 농장을 견학하고 반려식물 키우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을 체험했다. 이날 참가자는 남구장애인복지관(관장 조용호)을 통해 선정됐으며, 체험에 참여한 한 체험자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며 여유롭게 체험을 하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현호 본부장은 "치유농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며 "바쁜 일상 속에 지쳐있는 도시민들

이 농촌에서 행복과 여유를 느끼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